



2001 10

커버스토리 이유진 · 임성민 · 이주희

일일 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아침 연속극 「외출」

스포츠라이트 유정현

신인 아나운서 · 개그맨



04



10



34

SBS MAGAZINE CONTENTS

Humanism thru Digital

IN

새 프로그램 일일 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 최성은	04
새 프로그램 아침 연속극 「외출」 외출나온 다섯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이영희	10
새 프로그램 한·일 공동 제작 애니메이션 「탑블레이드」 모두 모두 비켜라! 액션 빵이 나가신다! 김재영	16
스포츠라이트 유정현 정체 모를 사나이의 묘한 앙상블 강호준	18
새내기 김민정 세상을 두근거리게 할 눈빛	20
췌인 「아버지와 아들」의 김혜선 성숙한 향기로 다시 돌아온 그녀 강호준	22
커버스토리 「여고시절」의 이유진, 임성민, 이주희 추억속의 화이트, 레드, 블루 이명량	24

2001 10

첫인사 신입 아나운서 윤소영, 정석문, 김지연 늘 깨어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28
2001 SBS 신인 개그맨 “신선한 웃음으로 복스러운 세상을 열겠습니다”	30
초점 「여인천하」의 권력 실세들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권력을 향해 이자혜	34
라디오 세상 행복한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선율 김성	38
케이블 TV 속 여행 스포츠 다큐 「작은 영웅들」 그들이 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조명수	40
2001 AFOS Korea 한국 모터 스포츠의 새 장을 열다	43
클릭! 인터넷	44
TV & RADIO 편성표	46
SBS 미디어넷 10월 하이라이트	49
SBS 영화 특급	50
마음으로 읽는 공간 환한 웃음이 되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한수진	51

OUT



표지설명

저마다 다른 크레파스를 가지고
「여고시절」을 색칠하고 있는 이유진,
임성민, 이주희. 이 삼총사가 그리는
추억의 그림에는 반짝이는 물방울이
아름져 있다.

사진 / 조광희

SBS magazine 2001년 10월호

통권 제119호 2001년 10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
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송
석형, 부주간 / 이근용, 기획 / 남지
혜,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780-0006 ● 편
집 · 디자인 / design_be, 전화
3446-7033 ● 스캔 및 출력 / 대
성출력, 전화 544-5665 ● 인쇄 /
동양인쇄, 전화 838-3311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
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
c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SBS 대국민 약속
물은 생명이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

극본 | 서영명, 연출 | 이영희, 10월 8일부터 월~금요일 저녁 8시 45분 방송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몸체는 둘이로되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나무 '연리지' 나, 한쪽의 날개만 가지고 있어 암수 한 쌍이 만나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전설의 새 '비익조'를 꿈꾸며... 그러나 신혼의 단물이 빠질 즈음 두 사람은 잊었던 또 하나의 금언을 생각해 낸다. 전생의 원수들이 만나 부부가 된다는...

SBS 새 일일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에는 다양한 부부의 모습들이 펼쳐진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듯, 이들은 싸우고 오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가정이라는 자신들의 소우주를 행복하게 꾸려가려고 노력한다.

소리 없이 쌓이는 세월 속에서

평범한 소시민 아내로 농익어버린 박금자(김보연 분)는 서른 아홉 살의 전업주부이다. 그녀 주변에는 더러 깃발을 날리며 빛나게 사는 성공한 캐리어 우먼도 있고, 남편 덕에 왕비처럼 빠지며 사는 친구도 있으며, 또한 부럽기 그지없는 싱그러운 청춘들의 사랑놀이도 있고, 주제를 모르고 꿈만 하늘처럼 높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처녀 시누이의 예기치 못한 인생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발 밑을 내려다보면 동사무소 만년 계장으로 출세도 멀고, 돈도 멀기만 한 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만 마시는 남편(송기운 분)과 사춘기에 접어들어 속만 썩이는 딸이 그녀를 허무하게 한다.

결혼 15주년을 맞은 날까지도 남편은 단골술집에 앉아 있다. 하필 그날따라 외제차를 새로 뽑았다는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니 하는 동창들의 소식이 들려 우울하던 참인데 말이다. 당장 꽃다발 하나 사 가지고 들어오라는 호통에 남편은 꽃가게 하는 누나한테나 얘기해 보라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처녀 시절 꿈꾸던 결혼이라는 게 이 모양은 아니었는데...





행복이라는 탈출구를 꿈꾸며

금자가 시샘하는 동생 영자(송채환 분) 부부의 모습도 평화롭지만은 않다. 영자는 한 회사에 다니는 남편(김규철 분)보다 지위도 높고 월급도 많은 능력 있는 직장 여성이지만, 까다롭기 짝이 없는 시아버지(이순재 분) 때문에 파출부도 맘대로 쓸 수가 없다.

“청소기는 시끄러우니 빗자루로 쓸어라.” “아래층 피해주니 발뒤꿈치 들고 걸어라.” 심지어 설거지 해놓은 그릇까지 하나하나 검사를 하던 시아버지는 피 같은 돈만 축내는 파출부 대신 직접 살림을 하겠다고 나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더니 파출부로 들어온 간간한 심옥주 여사(강부자 분)와 재혼 선언을 해서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지 뭐가.

방송사에서 미용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금자의 막내 동생 미자(박소현 분) 커플은 더더욱 예사롭지 않다. 큰언니네 집에 들렀다 우연히 마주치게 된 19년 연상의 형부 친구 재민(이영하 분)과 사랑을 엮어가니 말이다. 초청 전시회를

위해 일시 귀국한 화가 재민은 적극적이고 당당한 신세대 미자와의 사랑에 빠져 장기간 놀러 있게 되지만, 개성이 넘치는 신세대의 사고에 혼란을 겪는다. 미자 주변을 맴도는 남자 친구를 이해 못 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는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이 드라마에는 세 자매 커플 외에도 눈에 띄는 부부의 유형들이 있다. 금자와 함께 살고 있는 마흔 여섯 살의 노처녀 시누이 정희(윤미라 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총각 화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고 무작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부'라는 관계가 꼭 지켜야 하는 울타리라면 그 울타리 속에서 가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서로에 대한 예의, 정, 생활, 길들여짐 같은 것들... 하지만 정말 그런 '습관'만으로 우울한 일상을 감싸안을 수 있을까?

재민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이 기회에 혹 좀 때볼까 했던 올케 금자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젊고 예쁜 사돈 처녀한테 그 사랑을 뺏기고 만다. 그러나, 전화위복으로 상처한 중년 사업가를 만나 왕비처럼 대접받으며 살아간다. 가족에게 헌신해온 부모의 삶은 이제 그만! 살림이나 부탁하려는 며느리의 욕심을 뒤로 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누리겠다고 당당히 독립해 나가는 실버 부부의 모습도 흥미롭다.

'당신'과 '내'가 살아 있는 이야기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여자가 사는 법」 등을 집필해온 서영명 작가는 드라마마다 파격적인 상황들로 화제를 모아왔지만 3탄 격인 「이 부부가 사는 법」에서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유쾌한 파격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주변에 있을 법한 서민들의 이야기이다 보니 주위의 실존 인물 중에서 캐릭터들을 설정했다.

미국에 이민간 자녀들을 떠나 혼자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심옥주 여사는 앞집 아줌마 이름에서,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기인중은 술친구 이름, 주인공인 금자는 옛 동창의 이름과 그 친구 집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왔다. 실제로 술을 좋아하는 남편의 성격은 송정만의 캐릭터에 그대로 투사했고, 화가라는 직업은 배재민에게 집어넣었다. 마흔 일곱



친근하면서도 색다른,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생활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이야기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데 급급한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성찰하게 만든다. 가을을 맞아 서영명 작가와 이영희 프로듀서가 선사하는 「이 부부가 사는 법」은 바로 그 '성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살에 결혼해 이듬해에 첫딸을 낳은 친구도 드라마 속 송정희의 이야기를 통해 고스란히 살아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선우(김규철 분)에게 초등학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가정을 지켜주세요”라는 대목은 공영화 CP의 실제 상황이라는 귀뜸이다.

「바람은 불어도」 「당신이 그리워질 때」 등의 일일극을 인기 드라마 반열에 올려놓았던 이영희 PD는 특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우리 이웃의 삶을 다룰 예정이다. 이순재, 강부자가 서로 한 치도 지지 않는 설전을 펼치며 노년의 사랑을 엮어가는 부부로 출연해 오랜 호흡을 과시하고, 오랜만에 출연하는 김보연의 펄펄 살아 있는 연기와 송기윤의 푸근한 모습은 우리 이웃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윤미라, 이영하, 박소현, 송채환, 김규철, 서갑숙을 비롯한 출연진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딱 떨어지는 분위기

서영명 작가와의 짧은 만남

“서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 이 드라마에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는?

단막극을 제외하고 내 드라마 속에서 이혼하는 부부는 하나도 없었다.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결국 가정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밝게 담고 싶다. 싸우더라도 재미있게 싸우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드라마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웃주부들이 소재로 삼으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비밀스런 베갯머리 송사까지... 드라마는 서민들의 오락이다. 함께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 작가 부부의 사는 법은?

「이 부부가 사는 법」에서 송정만의 캐릭터를 닮은 화가인 남편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서로의 작업을 도와주며 산다. 얼마 전 애인 같던 이들이 군대를 갔다. 입대할 때 입었던 옷가지들이 돌아왔을 때 어찌나 울었는지... 결혼 생활 유지도 습관인 것 같다. 사랑해 도 6개월이다. 생활 속에서 정들고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부부의 모습인 것 같다.





여서 누구라도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로 꾸려질 것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영화보다 더 어지럽고 비상식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결국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가을을 따뜻하게 채워줄 훈훈한 삶이 담겨있는 새 일일 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된다. **SBS**

글 | 최성은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이영희 프로듀서와의 잠깐 데이트

“긍정적이고 공감이 가는 일일극”

– 서영명 작가와는 처음 하는 작업일텐데...

서영명 작가와 처음 작품을 만들지만 마치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사이처럼 호흡이 척척 맞는다. 캐스팅 때도 서로가 생각한 인물이 신기할 정도로 동일인이었다. 서 작가는 신선한 발상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 이 드라마의 특별한 재미는?

주부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설정들을 담으려 한다. 부부들의 성문제도 담게 될 것이다. 물론 생활 속에서 우회적으로 녹아내리는 표현할 예정이다.

–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일일극을 다섯 번째 하다보니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 일일극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가뜩이나 삶도 어려운데, 부정적인 요소나 심각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청자가 참지 못한다.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드라마를 지향한다. 역자가 아닌 사실적인 상황들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다.







외출 나온 다섯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극본 | 주찬옥, 연출 | 이현직, 10월 8일부터 월~토요일 아침 8시 30분 방송

어느덧 스산해진 가을 아침. 옷장에서 처음 스웨터를 꺼내 입고 잠시 집밖으로 나오면, 바람과 햇살과 낙엽이 노니는 거리가 보인다. 웬지 그 가을 아침 길이 먼 옛날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걷던 길처럼 느껴져, 한 번 옮긴 발걸음은 좀처럼 멈추어지지 않고... 그렇게 우연하게 '외출' 나온, 상처받거나 외로운 다섯 여자의 새로운 사랑이 '당신'의 아침을 잔잔하게 울릴 것이다.

“예 전의 나는 차라리 비극이 낫지 무료한 인생은 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른 일곱 살 이혼녀가 되고 보니 평온한 아침이야말로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안정처럼 깨지기 쉬운 게 또 있을까?”

SBS 새 아침연속극 「외출」의 주인공 난희(김미숙 분)는 드라마 첫머리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며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평온에 감사한다. 그러나 난희의 마지막 독백처럼 안정이란 깨지기 쉬운 것. 결혼이 깨진 뒤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혼의 흔적이 다잡은 마음을 흔들어버리곤 했듯이 혼자 사는 삶에 어느 정도 길들여질 무렵 한 남자가 다가온다.

남편의 바람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사랑. 여기까지는 그다지 신선할 것이 없다. 그러나 「외출」은 뻔하게 보이는 즐거리를 허겁지겁 쫓아가지 않는다. 「외출」은 왁자지껄한 파티가 아니라 나른한 오후의 티타임 같은 고요함으로 복잡한 주인공의 마음을 찬찬히 보여주려 애쓴다. 「여자의 방」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드라마를 통해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작가 주찬옥 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그 빛나는 재능을 발휘한다.

결혼, 허울뿐인 사랑의 다른 이름

「외출」은 이혼녀 난희를 둘러싼 다섯 명의 여자 이야기다. 난희의 이웃에 살고 있는 유진(송은영 분)과 혜란(황인영 분), 난희의 동생 난영(추자현 분), 그리고 전남편의 새 아내가 되는 태경(유혜정 분)까지. 드라마는 각기 다른 나이와 배경, 성격을 가진 다섯 명의 여자가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안에는 사랑과 성공, 결혼과 이혼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난희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긴 채 혼자 살아가는 이혼녀. 단조롭고 쓸쓸한 그녀의 일상에 자신의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연하의 청년 수민이 들어온다. 수민과의 감정이 사랑으로 무르익어갈 무렵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을 하자는 남편의 제의를 받게 된다. 작가 주찬욱 씨가 극본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난희 역할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탤런트 김미숙은 이번 드라마에서 이전의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난희는 현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도전하기도 하는 그저 평범한 여자예요. 한참 고민과 시행착오가 많았던 제 자신의 30대 초반을 떠올리며 연기하고 있어요.” 차분하지만 열정을 숨기고 있는 인물 난희를 연기하기 위해 김미숙은 퍼머넌트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의상도 정장보다는 드레시한 옷들을 골랐다. “술 마시는 장면도 많고 노래하는 장면도 있어요. 오랜만에 밝고 신나게 연기하고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 일상의 궤도를 살짝
벗어나는 여자들.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사랑을 찾아, 잠깐 낮선
거리로 외출나온 그녀들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네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랑은
한없이 애뜻하고 소중하기만 한데...

유혜정이 연기하는 태경은 난희의 전남편 정남의 새 아내. 부잣집 외동딸로 철없이 자라 자신만 아는 성격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순수하다. 결혼하기 전날 난희에게 찾아와 “결혼식에 와서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기적이지만 정남의 강한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맡아 키우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태경은 아이들과 난희와의 관계, 남편이 된 후 달라진 정남에게서 느끼는 실망 등으로 갈등하게 된다.

순수한 사랑은 정말 없는 것일까

난희의 이웃에 살고 있는 스물 세 살의 유진은 그야말로 ‘착한’ 여자다. 3년째 사귀고 있는 바람둥이 애인 태호에게 끊임없이 휘둘리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난희를 언니처럼 따르고 이웃집에 이사온 혜란도 쉽게 믿어버린다. 결혼을 하면 안정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고 결혼에 목을 매는 스타일. MBC 청소년 드라마 「나」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송은영이 오랜만에 맡은 배역이다.

이 드라마의 악역인 혜란은 유부남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자이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마음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믿지 않으며 순수한 사랑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 사랑의 감정에 매달려 있는 유진이나 난희를 비웃기 위해 그들의 애인인 태호와 수민, 정남에게 접근한다. 모처럼 개성 있는 역할을 맡은 황인영은 이현직 프로듀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외모에서부터 혜란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배우”다. 여러 남자를 ‘갓고 노는’ 혜란은 주부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동시에 통쾌함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게 제작진의 기대.

마지막으로 난희의 막내 동생 난영.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다. 유부남과 사랑해 아이를 가진 후 사표를 내고 언니 난희를 찾아온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지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찾아온 남자와 법정애까지 서게 된다. 여러 드라마를 통해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추자현은 이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장기인 터프한 연기를 선보인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남자 배역들도 개성 있는 연기자들로 채워졌다.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나라 남자의 전형’인 난희의 남편 정남은 연기파 배우 김병세가 맡았다. 연상의 여인 난희를 흔들어놓는 연하의 남자 최수민은 안재환이, 유진의 바람둥이 애인 태호는 김승현이 연기한다.

지난 삶을 성찰하는 나레이션

하루 30분씩 보통 120회 정도 방송되는 아침 드라마는 무엇보다 ‘다음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흡인력 있는 이야기 구조가 필수. 작가는 극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난희의 나레이션을 통해 자칫 산만해지기 쉬운 다섯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다. 때로는 난희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나레이션은 어떤

대사보다 강렬하게 다가온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약속 시간에 늦는 태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눈치채고 울고 있는 유진. 그리고 난희의 나레이션이 흐른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거짓말을 감지해내는 탐지기가 따로 몸 안에 있는 모양이다. 본능적으로 센서가 작동한다. 나도 그랬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 때 알아챘다. 그냥 알았다.”

연하의 남자 수민과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떠나는 수민의 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난희. “그래, 기분 좋은 젊은 친구를 만났어. 보름달이 뜨면 사람들은 약간씩 궤도를 벗어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었지?”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안은 느낌으로

드라마의 주된 촬영 장소는 일산의 아파트촌과 카페촌. 30대 중후반 여성들의 정서에 맞게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분위기로 드라마를 꾸밀 계획이다. 「외출」은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목.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 같은 드라마를 쓰고 싶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을 담고 있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안은 느낌의 드라마를 꾸며나갈 생각이다”라고 작가 주찬옥 씨는 말한다. 누구나 한 번쯤 새로운 사랑을 꿈꿔보는 가을, 주부들의 분위기 있는 ‘외출’을 부추길 한 편의 드라마를 기다린다. **SBS**

글 | 이영희 문화일보 기자, 사진 | 김연식

이현직 프로듀서가 말하는 「외출」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서는 이야기”

91년 SBS 공채 1기로 입사한 이현직 프로듀서는 「머나먼 송바강」 「사랑은 없다」 「공룡선생」 등의 조연출을 거쳐 주말극 「젊은 태양」 단막극 「자전거 도둑」 등을 연출했다. 지난해 설 특집극으로 방송된 「백정의 딸」로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Prize 2000'에서 TV 부문 대상을, '휴스턴 필름 페스티벌'에서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인 플래티넘 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연출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한참 뜨고있는' PD이다.

- 「외출」은 어떤 드라마인가?

여성들이 “우리 얘기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여자의 복잡한 내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작가가 워낙 그쪽으로는 탁월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는다.

- 다른 아침 드라마와 차별되는 점은?

아침 드라마는 불륜 등 스토리가 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선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잔잔한 이야기로도 주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촬영 도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혜란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유부남을 '마구 패는' 장면을 일산 아파트 단지에서 찍었다. 구경나온 주부들이 웃어서 NG가 여러 번 났다. 여자들이 상당히 통쾌해 하는구나 생각되어 기분이 좋았다.





모두 모두 비켜라! 액션 팬이 나가신다!

기획 | 김재영, 제작 | SBS, 서울 애니메이션, DR 디지털, 회원 엔터테인먼트, 담당PD | 조희수
10월 9일부터 월·화요일 오후 5시 50분 방송

TV 애니메이션계에 새로운 전설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동양의 신비와 화려한 액션이 화면 가득 어우러지는 대형 블록버스터 「탐블레이드」. SBS와 일본의 TV TOKYO가 공동 기획한 51부작 「탐블레이드」는 세계 탐블레이드(전투 팬이) 대회 우승을 위해 네 명의 소년이 겪는 모험담과 진한 우정을 다룬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이다. 특히 「탐블레이드」는 세계 최초로 팬이를 21세형으로 리모델링해서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탐블레이드」란 '블레이드 베이스', '웨이트', '디스크', '어택 링' 그리고 4성수가 갖든 '비트 칩' 등 5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투 팬이이다. 특히 주요 부품인 '비트칩'에는 4성수(성스러운 동물)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성스러운 비트의 정령이 깃들여 있다. 이 정령들과 일심일체가 되어 전세계를 누비는 주인공 탐블레이더는 청룡의 강민, 백호의 레이, 주작의 카이, 현

무의 맥스이다. 이 네 명의 소년들이 펼치는 스틸 넘치는 스피드 액션 팬이 대전은 도시 문명 속에서 나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승리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한 우정의 힘을 보여 줄 것이다.

전설의 동물 청룡이 강력한 회오리바람 속에 솟구치면 백호의 날카로운 발톱이 이를 가르고, 이에 질세라 주작과 현무의 파워 필살기가 펼쳐지면서 「탐블레이드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탐블레이드」는 한·일 양 방송사 외에도 한국의 대표 완구회사 <손오공>, 「하얀 마음 백구」의 제작사 <서울 애니메이션>과 일본 <매드 하우스>, <DR 디지털>, <회원 엔터테인먼트> 등이 손잡고 만들었다. 제작 기간 2년에 무려 60억 원의 제작비가 든 「탐블레이드」의 주제는 한국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여성 록가수 서문탁이 맡았다. **SBS**

글 | 김재영 콘텐츠운영팀 차장대우



이글



그리폰



살랭이



울프



전갈



맥스와 현무

강민과 청룡

카이와 주작

레이와 백호

이제는 딱히,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작은 아나운서였으나, 이제는 DJ에서 텔런트의 영역까지 모두 넘보고 있는 유정현. 그를 보고 있으면 과연 '엔터테이너'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일할 때는 미친 듯이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93년 SBS 공채 3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그는 「도전 불가능은 없다」,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발 모

그렇게 성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방송에 입문해서 어쩌다 보니 이것저것 다 하게 됐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할 때는 미친 듯이 해라거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뿐이죠. 그래도 그 중에는 시작을 그걸로 해서 그런지 MC가 제일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데 왜 뒤로 물러나요

유정현이 SBS 일요 시트콤 「여고시절」에서 맡은 역은 수영 강사 정정현 역. 정보석의 동생인 정정현은 대학시절 잘 나가던 국

한다. 더군다나 전혀 경험 못 한 장르인 시트콤이 그에겐 적지 않은 부담감일 터.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 첫 회에서부터 그는 열심히 그 배역을 소화해 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방영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기자로서의 역량도 함께 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연기에는 늘상 자연스러움이 배어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게 중요한 건 이 일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지요.”

스포츠라이트 유정현

정체 모를 사나이의 묘한 앙상블

닝와이드」 등을 비롯해 교양·오락 프로그램 진행을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그의 숨겨져 있는 끼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나 보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밤의 TV 연예」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남자 쇼」에서 신동엽과의 멋진 콤비 플레이로, 그리고 각종 쇼프로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끼를 발휘하고 있다. 아나운서와 MC, 그리고 DJ(SBS POWER FM 「두시 탈출」)로 방송을 이끌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울 텐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드라마와 시트콤까지 얼굴을 내밀었다. 드라마 「부자유친」에 잠깐 얼굴을 비치는가 싶더니 이젠 아예 연기자로 나섰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하는, 혹은 해온 수많은 역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교 다닐 때 워낙 힘들게 공부해서 그런지 성악에 대한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가대표 수영 선수였으나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선수 생활을 접고 현재 조오런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사로 있다. 멋진 목소리로 대학시절 여고 앞 분식점에서 DJ로 활약한 경력이 있는, ‘폼생폼사’의 인물로 임성민과는 연인 사이이면서도 은근한 바람기로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는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능청스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요즘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덩벼든 분야가 시트콤이잖아요? 순발력과 재치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도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연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 감춰진,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자꾸 나를 잡아당기거든요.”

이번 정정현 역은 그에게 과거와 현실을 넘나들어야만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요구

에너지 बैं크 속에 있는 재미

물론 살다보면 삶의 목표가 여럿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의 에너지 बैं크에는 뭐가 들어 있어서 그 많은 목표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일까. 이런 파워 때문에 그를 ‘단순하게’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방송에서 그를 보고 있으면 이제 갓 방송을 시작한 신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언가 어설피면서 어설피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안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이중성이 그에게는 있다. 그게 그의 매력이고, 그 매력이 방송을 재미있게 만든다. **SBS**

글 | 강호준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세상을 두근거리게 할 눈빛

신인 연기자 하면 노란 병아리가 생각난다. 너무나도 귀엽고 깨끗한 병아리가... 그런데 요즘 「여인천하」의 모린 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 연기자 김민정(24세)을 보면 “세상에 저런 병아리가 어디 있어?” 하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치곤 생의 표독한 이면(?)을 너무 잘 아는 표정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인천하」에서 맡은 모린 역이 그래요. 순진하게 보이다가도 살기를 번득거리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모린이는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내면의 감정을 모두 표정 연기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네요.”

밤낮없이 ‘모린’役に 폭 빠져 있는 김민정. 요즘 그녀는 촬영 시간을 빼놓고는 거울 앞에서 시간을 모두 보낸다. 눈빛과 표정만으로 모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신인 연기자에게는 너무 벅찬 연기를 요구하는 모린 역을 통해 기초부터 탄탄히 연기력을 키울 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객석에 불이 켜졌을 때 모두들 울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짜릿하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내가 업으로 삼아야 할 게 연기라는 걸.”

음대를 지망했던 그녀는 연극 공연후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단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학업만으로는 좀처럼 연기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극단 〈가가의회〉에 들어가 2년 동안 뮤지컬을 했다. 그러다가 카메라에 앞에 서서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에 SBS 9기 탤런트 시험을 봤고 ‘믿기지 않게(?)’ 합격을 했다. 여러 편의 연극을 했던 터라, 다른 신인 연기자에 비해 조금 노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신인이다. 김재형 프로듀서의 ‘컷’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고 하는 걸 보면... 하지만 「여인천하」에서의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시청자들의 가슴마저 두근거리게 할 날은 멀지 않은 것 같다.

사진 | 김연식



성숙한 향기로 다시 돌아온 그녀

와 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값어치가 높아진다. 물론 어디에서 생산된 포도인가도 값어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와인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오래 숙성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않았는데 오래 사귀 친구나 가족처럼 느껴지는 연기자가 있다. 언제까지나 텔레비전에 나올 것 같은, 아니 나와야만 하는 연기자. 연기도 물론이거니와 현실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연기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김혜선이라면 그런 연기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병만 번지르르 예쁜 와인이 아니라 고운 빛깔과 함께 세월이 갈수록 값어치를 더하는 와인 같은,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연기자라고 말이다.

인생이 묻어내는 연기

90년대 초 하이틴 잡지를 뒤적이면 유달리 많은 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 김혜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금세 “맞아, 맞아. 그랬었지” 하며 맞장구를 칠

것이다. 하지만 잡지의 타이틀을 장식했던 그 많은 연기자들이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의 추억 속에 자리잡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

이 욕심이 1989년 대하 역사 드라마 「파천무」에서 그녀로 하여금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했다. 미모를 한껏 과시하는 비교적 ‘쉬운(?)’ 역할도 많은데도 그녀가 ‘삭발’을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연기를

속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김혜선. “그래도 연예 활동으로 인해 남편과 아이에게 소홀한 면이 없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은은하게 때로는 강하게

올해로 연기 경력 13년째를 맞은 김혜선. 그녀는 1989년 MBC 청소년 드라마 「푸른 교실」로 연기를 시작했고, 1999년 KBS 드

좋은 연기자는 세월의 두께가 더할수록 인생의 그윽한 향기가 묻어나는 연기를 보여준다. 「아버지와 아들」에서 다시 한번 좋은 연기자임을 확 인시켜주고 있는 김혜선. 그녀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혜숙 역을 통해 삶과 연기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향한 열정 때문이었다.

정상을 달리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꾸준히 연기에만 집중하던 그녀는 1995년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미국 유학길에 훌쩍 동행해서 시청자들을 약간은 서운하게 만들었다.

1999년 잠깐 컴백했다가 2년만에 다시 돌아온 그녀는 “연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묻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확인시켜 주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인생 경험을 점점 연기의 폭

라마 「당신」에서 18세 새색사에서 70대 노인까지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주인공의 삶을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 그런 김혜선이 SBS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에서의 혜숙 역을 맡아 주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혜숙은 슬기라는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30대의 과부이다. 매맞는 아내였다는 쓰라린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다정다감하면서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그런 어머니상을 대표할 수 있는 배역이다.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시대의 여성상을 대표하는 강한 캐릭터인 것이다.

“무뚝뚝한 척 하지만 태걸(주현 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은근한 정에 마음이 흔들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역할이에요. 우선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연기자란 어떤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맡았던 역들 역시도 쉽지만은 않은 역이었거든요.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더 이상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녀의 말에서는 이제까지의 그녀의 연기 생활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늘 연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고 있지만 고여 있는 물이 아닌 항상 신선한 물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새로운 모습, 아니 어찌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녀만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그녀는 “연기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한다”고 말한다. 연기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성실한 연기자 김혜선. 우리는 그녀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응답해야 할 것 같다. **SBS**

글 | 강호준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추억 속의 화이트, 레드, 블루

- 「여고시절」의 이유진, 임성민, 이주희





이유진

“

덜렁되는 모습 속에 숨겨진 사려 깊은 눈길처럼,
아직 철부지 티를 벗지 못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안을 거예요.

”

누구에게나 추억은 있다. 그러나 그 추억의 빛깔은 저마다 다르다. 같은 학교, 한 교실에서 똑같은 모양의 책상과 걸상에 둘러싸여 지냈다고 해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책상 위의 낙서는 그 생김새가 다르기 마련이다. 친구나 짝사랑의 이름을 비뚤비뚤 새겨놓은 낙서도 있고 사인펜으로 고민거리를 깨알처럼 써놓은 낙서도 있지 않은가. 아마도 그때의 그 낡은 책상 앞에 다시 한번 앉게 된다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기에만 급급해서 지나간 추억을 까맣게 잊고 있는 우리 앞에 어느 조그만 여학교의 세 여자들이 갈래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때 그 시절에는 절실했던, 삶의 낙서가 빼곡하게 써 있는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이유진, 하얀 눈처럼

1978년에 태어난 이유진은 90년대 후반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한 번 보면 절대로 못 잊는 개성파'에 속하는 연예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유진은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녀가 출연한 CF나 드라마를 보면 그녀의 '톰보이' 적인 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시트콤 「여고시절」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여고시절」의 유진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부지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죠. 유진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사랑으로 해결해

요.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시동생 정현과의 갈등, 여학생 시절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남편에 대한 실망을 다 사랑으로 감싸안는 거죠.”

아직은 그녀의 살결처럼 하얗기 만한 이 철부지 사랑이 완숙한 빛깔로 성숙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도 「여고시절」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는 커다란 재미가 될 것이다.

임성민, 붉은 빛처럼

요즘 임성민에게는 아나운서 출신 탤런트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연기만을 업으로 해온 연기자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

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아나운서 시절에도 오랫동안 ‘표현’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껴왔기 때문인 것 같다.

“연기의 매력은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나운서로서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연기를 통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나름대로 무척 행복해요.”

팔방미인, 만능 엔터테이너, ‘당찬녀’ 등의 수식어로 곧잘 표현되곤 하는 여자 임성민. 그녀는 본인 스스로를 “삶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한다. 자신의 삶을 재능보다는 열정으로 채우겠다고 말하는 그녀. 그 열정이 연기로 옮겨와 안방극장을 그 붉고 선

임성민

“

일도 사랑도 열정으로 불태우는 여자, 하지만 그런 여자 속의 ‘여자’ 에게는 남모를 수줍음과 소녀 같은 설렘이 숨어 있습니다.

”





이주희

“

자신의 상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상처까지 푸르게 녹여, 저 멀리 화해의 바다로 흘러보내는 마음을 아시나요.

”

명한 빛으로 가득 부풀려주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이주희, 푸른 바다처럼

“요즘은 이혼녀가 굉장히 많은 사회잖아요. 극중 주희는 이혼녀라고 해서 기죽지 않아요. 양제지만 유진과 성민 사이에서 그 둘의 대립을 무마시켜주기도 해요. 한 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죠.”

아역 스타에서 성인 연기자가 되기까지 ‘기다림’이라는 지혜를 배웠다는 이주희. 그녀는 이번 「여고시절」에서도 와일드한 검사 역을 맡은 임성민과 사랑밖에 모르는 철부지 이유진 사이에서 무엇이랄도, 또한 그 누구라도 제 품에 받아들이는 그녀 특유의 넉넉함으

로 동료 연기자들과 시청자들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그녀의 각오가 바다처럼 싱싱하기만 하다.

세 가지 색깔의 추억

화이트, 레드, 블루를 연상하게 만드는 여자, 이유진, 임성민, 이주희. 그녀들은 네 귀퉁이의 각도까지 자로 잰 듯 똑같은 모양의 책상 위에 저마다 다른 색깔의 펜으로 자신만의 추억들을 한 자 한 자 선명하게 써나갈 것이라고 한다. 여고시절이라고 하는 낯은 책상 위에 그녀들이 이 선명한 색깔의 펜으로 어떤 낙서를 써 내려갈지, 그 내용이 궁금하기만 하다. **SBS**

글 | 이명량 소설가, 사진 | 조광희

신입 아나운서
윤소영, 정석문, 김지연

늘 깨어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낸 도전장

윤소영

1978년생,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재학중



아나운서는 그 어떤 직업보다 훨씬 다양한 재주와 뛰어난 실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난해한(?)' 자리를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차지했다는 소식은 세상을 살짝 들뜨다 놓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세간에 화제를 몰고 온 주인공 윤소영은 들떠 있기는커녕 약간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너무 일찍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만큼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능력 있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아직도 공부하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 많은데..."

합격의 설레는 마음은 어디다 버려놓았는지 잔뜩 욕심 보따리만 풀어놓는 윤소영. 그녀의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자신의 평범한 모습에 늘 위기감을 느껴왔던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래서 대학도 한 번 옮겼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은 제가 저에게 낸 최고의 도전이었어요. 이제 그 도전장은 접수했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지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당당함과 재치를 키워 정은아 아나운서처럼 능숙한 진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배 아나운서들의 좋은 점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내면화시키겠다고 벌써부터 분주한 그녀는, 끝까지 노력하는 집념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 SBS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뢰감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남자

정석문

1976년생,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흔히 듣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융통성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여기 그 융통성마저도 허락하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 바로 솔직함을 큰 밀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내기 아나운서 정석문. "사실 솔직한 성격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을 모면하자고 거짓말을 하기 싫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듣는 사람도 훗날 자신에게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솔직함을 중요시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이 꿈꿔왔고, 앞으로 펼쳐나갈 아나운서의 생명이 신뢰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뢰감은 솔직함으로 쌓이는 것이니까요." 철두철미하게 솔직 담백한 정석문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됐다.

그는 시종일관 새내기 특유의 긴장된 표정을 지으면서도 간간이 여유 있는 웃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포부를 밝혔다.

"덤비지 않고 조금씩 내실을 다지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15년쯤 쌓이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혹은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는 SBS 간판 토크쇼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김지연

1978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재학중



"미국 연수중 CBS에서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리포터를 따라다니며 직접 취재하고, 뉴스 제작 전반에 관해 배우면서 방송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지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학과 공부 외에도 연극반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연극이 계기가 되어서 단편 영화에도 출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다며 함박 웃음을 머금은 김지연. 그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라고 했다. CBS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앵커석에 앉아 있을 때, 또 사회 보는 연습을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앞으로 SBS라는 공간 안에서 이 행복함을 더욱 풍족하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 행복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모토인 적극적 사고, 열린 가슴, 따뜻한 시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한없이 따뜻하고, 유하면서도 일을 할 때는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그녀. 정형화된 틀에서 약간은 벗어난 신선함과 편안함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올 날이 기다려진다.

사진 | 김연식





소문만복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격언이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 SBS의 웃음을 책임질 2001 신인 개그맨들을 주목해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터. 그들과 함께 웃다 보면 어느새 시청자의 안방에는 복덩이가 덩굴째 들어와 씨익 웃고 있을 것이다. 복덩이 웃음을 덩이덩이 안겨주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데뷔한 2001 SBS 신인 개그맨들. <SBS 매거진>이 대상을 받은 팀 '개그머신(조세호·김경욱)'을 비롯해 15명의 예비 개그 스타들을 만나보았다.



개그머신 · 대상

조세호 82년생, 예원대 코미디언기학과 재학중

김경욱 83년생, 명덕고 재학중

신선한 아이디어와 척척 들어맞는 호흡으로 대상을 거머쥔 '개그머신'의 조세호와 김경욱.

그들은 '개그머신'이 전세계를 웃길 수 있는 그날까지 '무진장' 노력하겠다고며 틈틈이 아이디어 수첩을 빼곡하게 채운다.

그들이 풀어놓을 '세계적인(?)' 웃음 보따리가 기다려진다.



웁스웁스 · 금상

김한배 78년생, 청주대 연극영화학과 휴학중

박보드레 76년생, 호남대 연극영상학과 휴학중

엉뚱한 상상력을 화끈하게 보여주겠다는 박보드레와 오로지 웃기는 데만 에너지를 쏟겠다는 김한배.

이들은 아무리 비중이 작은 배역이 주어지더라도 창조적으로 승화하여 시청자들의 입을 함지박만하게 벌려 놓겠다고. 그러니 '입 조심(?)' 하시라고 엄포를 놓는다.

엽기커플 · 은상

손명은 79년생, 한국 코미디 스쿨 수료

김주현 82년생, 원주대 휴학중

독특한 오감을 가졌다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손명은은 그 가운데 가장 발달된 감각이 후각이라고. 그래서 늘 개그의 향기를 맡으며 산다고 한다.

그러자 '악동 흥록기' 김주현은 무당이 점신을 하듯 자신은 개그의 신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라고 받아친다. 오호! 엽기커플답게...



김진성 · 은상

80년생, 청담고 졸업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지하철에서 승객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너스레를 떠는 김진성은 어려서부터 개그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김진성은 웃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개그를 하고 싶다고.





고석준 · 동상

71년생, 중앙대 인문대학원 일본학과 휴학중

한때는 웃기는 일본어 강사를 꿈꾸었다는 고석준. 그는 평범한 사람의 생활이나 사건을 소재로 친근하고 시사성이 있는 개그를 하고 싶다고 한다.

역지로 웃기거나 '동정(?)'을 유발해 웃기는 포즈는 지양하고, 편안하고 푸근하게 때로는 과격적으로 웃기는 개그맨이 안방으로 다가오고 있다.

개거스 · 동상

엄경천 79년생, 서울예대 연극과 휴학중

윤성호 76년생, 동아방송대 연극영화과 재학중

“색깔이 살아 있는 개그를 위해서, 순수한 개그를 위해서, 꿈 같은 개그를 위해서...” 윤성호와 엄경천은 또 말한다. “열나 웃기는 개그를 위해서, 확실한 개그를 위해서, 살벌한 개그를 위해서... 여하튼 개그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흑성탈출 · 장려상

박재석 79년생, 오산대학 세무회계과 휴학중

홍성기 82년생, 오산대학 컴퓨터정보과 재학중

나이가 어떻게 되든 웃음 앞에서는 모두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박재석과 홍성기. ‘웃음 흑성’을 건설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 수 있도록 ‘막노동(?)’도 서슴치 않겠다는 이들의 근육질 웃음을 보고 나서도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



축구동자 축구남자 · 장려상

김범용 77년생, 서일대학 레크레이션과 졸업

이정필 78년생,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졸업

애인보다, 돈보다도 개그맨으로서의 명예를 충실하게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 받쳐 ‘투쟁(?)’하겠다는 이정필과 김범용.

개그 투사로 나서 세상의 슬픔과 적극 맞서 싸우리라는 이들의 결의 속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웃음의 불꽃이 보인다.

75년생, 단국대 연극영화과 재학중

“거울아! 거울아! 낭만, 우수, 고독 가운데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뭐니?” “없어!” “으잉?” “네 피에는 웃음이 흐르고 있어.” “으응! 아주 좋아, 좋아.”

넘치는 웃음의 피로 SBS의 개그 프로그램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최국은 다시 묻는다.

“거울아! 그게 가능할까?” “두고보면 알겠지.”

최국 · 동상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권력을 향해

권력이 인생의 전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행복은 권력 밖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번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오로지 권력에 인생을 걸고 돌진해 나간다. 벼랑 끝이든 모진 파도 위든 상관없이 살아 남기 위해 적과 손을 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놓아버리기도 하면서 권력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여인천하」의 대신들은 요즘 세자 책봉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미는 왕자를 세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세자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왕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지요, 정권의 중심에 오르기 위해 벌이는 싸움인 것이다.

원자 측의 권력자들, 윤임과 김안로

판돈녕부사 윤임과 회락당 대감 김안로는 적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원자를 왕세자로 추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윤임은 강보에 싸인 어린 원자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비련의 왕비 장경왕후의 오라버니로 진심을 다해 원자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러나 외척이라는 신분적 제한 때문에 아직은 어린 원자를 멀리서 조용하게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원자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보고 그가 왕이 될 날을 기다리며 판돈녕부사라는 명예직을 충실하게 지켜나간다.

판돈녕부사 윤임 역은 그 동안 애인 같은 남편으로 이미지를 굳혀온 이효정 씨가 맡았다. 평소 다정다감해 보이던 그의 서글서글한 눈매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눈빛의 윤임이 되어 드라마의 긴장을 잘 유지시켜 주고 있다. 무관 출신다운 의리 있는 모습이 온통 권력 지향적인 존재들 틈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윤임은 원자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정치적 지략은 부족한 인물이다.

윤임이 “이번에 원자께로서 낙점되시는 데는 중전마마와 파산 부원군 댁 삼부자의 공도 컸소이다. 허니 승후관 형제의 출사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면 김안로는 “원자마마께오선 겨우 한 고비를 넘으셨을 뿐이옵니다. 앞으로 원자 아기씨의 장래에 위협이 될 사람은 중전마마와 중전마마의 복중 아기씨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윤임을 일깨워 준다. 윤임의 충직함에 더해진 김안로의 정치적 안목.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환상적인 파트너 쉽으로 세자 뒤에서 조용조용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이조참판 김안로는 원자 누나인 효혜공주의 시아버지로 대세를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이미 윤임과 원자에게 있어 최대의 강적이 문정왕후(전인화 분)라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이런 안목에다 권모술수도 능했던 그는 정치적 야심 또한 컸다. 세자 책봉의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던 문정왕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연일 배신과 음모로 시간을 덧칠하는 「여인천하」의 대신들. 그들은 향후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정치적 저울질에 여념이 없다. 과연 이들이 부러놓은 권력의 강
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자...

후와 손을 잡고 원자의 세자 책봉을 달성하지만 이내 문정왕후에게 등을 돌리고 홍경주, 심정과 손을 잡는다.

김안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다 귀양을 떠나기도 하지만, 귀양지에서 난정을 통해 '작서의 변'을 일으켜 경빈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다시 득세한다. 그러나 권세란 인생과 같이 덧없는 것. 그도 역시 문정왕후와 난정의 계략에 빠져 제거된다. 김안로 역은 여러 역사극 속에서 '한치영' '유성룡' '변계량' 등의 역을 연기했던 김종걸 씨가 맡았다.

“사극이 일반 드라마 보다 좀 어려워요. 게다가 이번에는 악역이어서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연기적 감성이 잘 해내리라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성군 측의 권력자들, 남곤과 심정

경빈 박씨(도지원 분)의 아들인 복성군은 중종의 장자이다. 경빈의 날개 노릇을 하던 좌의정 남곤과 화천군 심정은 복성군이 장자임을 내세워 세자의 자리에 앉히려 애쓴다. 원자 쪽으로 기울는 대세에 저항하는 남곤을 찾아간 김안로는 “정승 반열에 오르신 대감께서 언제까지 일품명부 후궁의 심기만을 살피실 작정이옵니까?”며 남곤의 급소를 찌른다. 그러면서 권력지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내밀자 남곤은 못 이기는 척 이를 받아들인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따지는 실속파 남곤 역은 연기 경력 30년이 된 문창길 씨가 맡았다.

“역사 드라마는 인물 설정이 쉽지 않지요. 어투도 많이 다르고 감정 표현도 복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곤의 친구이자 오른 팔인 심정은 피주머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잔꾀를 잘 쓰는 인물. 남곤의 정치적 변심을 알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놀라지만, 그도 역시 야합과 배신으로 얼룩진 정치판을 넘나들다가 결국





귀양지에서 사사된다. 김정 역은 83년부터 연기를 시작한 김영선 씨가 맡았다.

“정치적인 악역은 처음입니다. 선배님들의 연기를 통해 컨셉을 잡아가고 있어요. 연기력이 부족하면 사극의 묘미를 살리기 어렵다는 걸 실감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원군을 버린 홍경주

희빈 홍씨의 아버지 홍경주는 반정 공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회한 정치가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종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정국을 배후에서 조정했으며, 조광조를 찍어내기 위해 ‘주초위왕’ 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원자가 세자로 추대될 조짐이 보이자 희빈 홍씨는 눈물을 찍어내며 앓아 눕지만, 그 시간 김안로를 만난 홍경주는 권력지분인 영의정 자리를 받아들이며 김안로와 손을 잡는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가 입장에서 영의정 자리를 마다하고, 무리수를 두어 가며 금원군을 세자로 만들겠다고 고집부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노련한 정치가 홍경주 역은 성우로 시작해 연기의 세계에 들어선 안대용 씨가 맡았다.

“30년 전 첫 데뷔작이 역사극 속에서의 수양대군 역이었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그 열정을 떠올리며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강물은 어디로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배신과 야합, 결탁, 타협으로 물갈이 아닌 물갈이를 하면서 「여인천하」의 권력 구도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자신의 권력지분만 챙길 수 있다면 피도 눈물도 소용없고, 설사 금새 배반할지라도 오로지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그들은 정치가이다. 그들이 뭉쳐 이제 고립무원이 된, 그러나 만만치 않은 문정왕후를 상대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부러 놓은 권력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SBS**

글 | 이지혜 시인, 사진 | 김연식

행복한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선물

새벽이라는 시간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색깔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긴 밤을 꼬박 지새우고 졸린 눈을 비비며 하루를 접는 올빼미족,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서로 엇갈리는 바로 그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을 깊은 새벽에 라디오를 켜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김소원의 뮤직토피아」

연출 | 송연호, 진행 | 김소원, 매일 새벽 2시 방송

슬픔을 툭툭 털어주는 친구

「김소원의 뮤직토피아」는 어떤 프로그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시간 내내 절대 지겹거나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유쾌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솔직 담백하고 조금은 엉뚱한 경력이 있는 6년차 아나운서 김소원. 그녀는 마음 내키면 성대 모사를 하기도 하고, 어법에 안 맞는 가요의 노랫말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이따금 즉흥 콩트 연기까지 하는 '파격적(?)'인 진행자이다.

“친구들 가운데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울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깨를 툭툭 쳐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씩씩한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래요.”

심리학을 전공한 탓에 “눈동자가 큰 여자는 왜 인기가 있을까요?” 라든가 “남녀가 롤러 코스터를 같이 타면 왜 친해질까요?” 같은 물음을 던져놓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내는 그녀의 얘기를 듣다보면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곤 한다. “아! 맞아!”

입사 초기에 풍물 기행 리포터로 우연히 페루에 갔다가 운 좋게 숙소 건너편에서 벌어진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 사건이라는 특종을 만나 기자에게만 주는 보도 특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소원 아나운서는 매일 '뮤토' 식구들과 듣고 싶은 가요와 팝송을 선물로 준비하고 만나는 일이 행복 그 자체라고 말했다.



「사운드 오브 뮤직 1부 - Music Carpet Ride」

연출 | 이정은, 진행 | 이현경, 매일 새벽 3시 방송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나운서 가운데서도 특히 발음이 정확하기로 소문난 이현경. 그녀는 듣는 사람까지 똑똑해질 것 같은 부드럽고 이지적인 목소리로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청취자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ID 가운데 대부분이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군대에 가게 됐는지 누가 중간고사를 잘못 봤는지... 그런 세세한 일들까지 그녀는 다 파악하고 있다. 편안한 팝에서부터 열정적인 재즈, 친숙한 영화 음악과 상송까지

네티즌들이 선곡표가 났도록 클릭하는 것도, 선곡을 칭찬하는 이유도 그만큼 정성어린 준비 때문이 아닐까.

너무나 완벽한 진행으로 조금도 빈틈이 없어 보이는 5년 경력의 이현경 아나운서.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그러하듯 평소엔 말수가 적고 취미도 재봉틀 다루기 같은 여성스런 일이지만, 일단 마이크 앞에 앉으면 많은 애청자들의 언니, 누나가 되어 한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노련하게 척척 진행하는 총명한 눈빛의 이현경 아나운서는 새벽마다 슬픈 오늘이 아닌 희망의 내일을 얘기하고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 2부 - 내 마음의 클래식」

연출 | 김국은, 진행 | 이병희, 매일 새벽 4시 방송

클래식으로 여는 상쾌한 새벽

새벽에 클래식이 어울릴까? 당연히 OK! 안성맞춤이다. 세상이 덜 시끄러울 시간, 편안하고 귀에 익은 클래식 소품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상쾌함 그 자체이다. 이제 입사 3년차인 이병희 아나운서는 동기들에 비해 출발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스스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녀와 클래식의 인연은 남다르다.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시절 교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수석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던 숨은 재주꾼과 성악을 전공한 김국은 프로듀서와의 만남은 어쩌면 숙명이 아닐까?



클래식이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병희 아나운서,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 〈울게 하소서〉 같은 아리아가 유명해졌듯 클래식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방송 모닝 와이드」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 전파에 ‘목숨’을 건 그녀는 “아나운서는 직업이지만 클래식은 인생이다”라며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는다. 애청자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하고 아늑해서 신비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를 클래식 선율에 섞으며….

어두운 길을 달리며 카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이나 고즈넉한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혼자이다. 혼자서 공부나 일을 하는 게 외로워서, 아니면 벽찬 사랑이나 슬픔이 좀처럼 어둠을 뚫어주지 않아서 항상 라디오를 켜놓는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의 음악지기들은 마이크를 잡는다. **SBS**

글 | 김성 방송작가, 사진 | 조광희



케이블 TV 속 여행 스포츠 다큐 「작은 영웅들 - 프로 레슬링과 사람들」

그들이 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연출 | 박용석, 제작 | SBS스포츠채널, SBS스포츠채널(케이블TV Ch30) 10월 11일, 18일, 25일, 11월 1일 오후 5시 50분 방송

링 위에서의 한판 승부만이 레슬링의 전부는 아니다. 박치기 왕 김일 선수만이 프로 레슬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슬링을 떠올리면, 거구의 남자들이 몸을 밀치거나 머리를 틀어쥐고 괴성을 지르며 과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생각할 뿐이다.

SBS스포츠채널(케이블TV Ch30)의 스포츠 다큐 「작은 영웅들」은 10월 한달 동안 한국의 프로 레슬러들을 찾아가 그들의 레슬링에 대한 열정과 싸늘한 현실과 맞서 자신의 스포츠를 지켜나가는 과정을 스포츠 마니아들에게 비춰주고자 한다.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은 레슬링을 찾아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프로 레슬링 경기를 TV로 중계했고, 낯익은 얼굴도 볼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레슬링의 현장은 TV 속에서 사라졌다. 단지 오락 프로그램에서 개그맨과 겨루기를 하는 레슬러들을 만날 뿐이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서는 WWF와 WWA로 유명한 프로 레슬러들이 스타급 대우를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괴상하기 짝이 없는, 어쩌면 해괴해 보이기도 하는 분장과 복장으로 관중의 시선을 모으는 레슬러들이 한방의 펀치를 멋지게 날리고 또 멋지게 쓰러지는가 하면, 캐스터는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는 WWF는 SBS스포츠채널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얻고 있다.

무수히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스포츠에 인생을 던지고 자신과 싸워가고 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몸을 던지며 경기를 치루어야 하는지, 그들의 열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스포츠 다큐 「작은 영웅들」에서 특집 기획 4부작으로 레슬링의 현장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왜 그들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몸도 힘들고 위험하기 까지만 스포츠에 몸을 던지고 떠나려 하지 않는가….

박용석 프로듀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며 바로 스포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작은 영웅들」을 기획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너무나 쉽게 가까워서 봐왔던 레슬링이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놀랍게도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만 현역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왜 아직도 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박치기로 유명한 김일 선수는 젊은 날의 화려했지만 위험했던 링에서의 활동으로 몸이 불편하고, 그 뒤를 잇는 이왕표 선수는 사단법인 '격기도'를 설립한 뒤 대학과 도장에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노지심 선수 또한 TV 출연 등으로 얼굴을 알리며 레슬러로서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현역 선수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

여자 프로 레슬러들도 마찬가지다. 정현숙과 미스 마스크라라고 불리는 두 명의 선수만이 프로 레슬러로 현역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마흔을 넘긴 선수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본 제작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의 열정은 이제 갓 레슬링을 시작한 젊은 선수들 못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고의 레슬러들이라고.

침체된 레슬링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에서는 프로 레슬링은 너무나 유명하다. 프로 야구나 축구보다 입장권도 비싸고, 프로 레슬러들의 몸값도 엄청나다고 한다. 또 경기에서부터 TV 방송까지 사업화되어 있어, 프로그램 판권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프로 레슬링의 현실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왕표 선수는 레슬링을 무술로 인정받기 위해 이론을 집대성해 교본을 만드는가 하면, 격기도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대중에게 쉽게 기술을 가르키기 위해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한 레슬링의 기술에 걸맞게 수준 높은 중계를 보여주려고 직접 비디오 제작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의 산둥 TV와 판권 계약 수준을 밟고 있다고 한다.

“TV에서 스포츠로 중계하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을 보여줘서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레슬링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의 고도의 테크닉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술의 전수도 공개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요.”

유일한 스타 레슬러로서의 사명감으로 침체된 레슬링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왕표 선수의 기대만큼 프로 레슬링이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동네 부잣집 TV 수상기에서 웅기종기 모여 김일의 박치기에 열광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일상에 바쁜 어른이 되었다. 그 세월만큼 국내 프로 레슬링은 세간의 관심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쉽게 국내 프로 레슬링이 잊혀져도 되는 것일까? 프로 레슬러들이 안겨줬던 즐거움과 감동은 그렇게 작지 않았는데….

스포츠에는 인간의 강인함이 남아 있다

그 동안 스포츠 다큐 「작은 영웅들」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선수들의 면면을 찾아서 보여왔다. 여자 역도의 메카라 불리는 순창여중 역도부를 찾아가 스포츠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담는가 하면, 소년의 집 고아원 축구팀인 ‘알로이시오 축구팀’과, 이제는 유명해진 고아원 골프 선수들을 배출한 ‘계룡학사 골프팀’, 장애인 역도팀 등 가까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TV로 비췄다.

제작팀은 짧게는 한 주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스포츠 선수들의 필드와 링 이면에서 가까이 지켜보면 한결같이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인간의 강인함을 실현하고 있다. **SBS**

글 | 조명수 SBS미디어넷, 사진 | 김연식

한국 모터 스포츠의 새 장을 열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하게 발전을 계속해 온 한국 모터 스포츠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했다. SBS뉴스텍과 SBSi가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한 2001 AFOS(Asian Festival Of Speed) Korea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가 바로 그것.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인 스피드 웨이 서킷에서 개최된 2001 AFOS Korea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주최: (주)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 SBSi)는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자동차 경주로 이어지는 세계 3대 빅 스포츠 행사를 이번엔 개최와 동시에 방송함으로써 SBS 모터스포츠의 위상과 대외적인 인지도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대회는 STAR TV와 ESPN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61개국 이상으로 방송되는 국제 규모로서 한국의 자동차 경주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는 모터 스포츠를 정확한 정보와 감동을 함께 주기 위해 여느 대회와 달리 국내 최초로 올림픽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또한 관람과 취재 등 대회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도 국제 대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ATCC(Asian Touring Car Championship), AF2000(Asian Formula 2000), PAC(Porsche Asian Championship) 등 세 종목의 경기에 국내 KTCC 경기까지 함께 펼쳐졌다. 특히 포르세 경기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경기로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일반인들과 마니아들에게 자동차 경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터 모터 스포츠가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SBS**

TV 다시 보기 유료 서비스

SBSi가 더욱 안정된 속도와 향상된 화질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환책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SBSi 내 TV 동영상상을 유료로 전환하여 제공했다. SBSi의 유료 서비스는 현재 방영중인 TV프로그램의 동영상(월·화/수·목/주말 드라마 60분물 기준)과 현재 200원에 유료 서비스하고 있는 대본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500원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30분 분량의 일일 프로그램과 종영 프로그램의 경우는 300원에 제공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일 2,000원으로 사이트 내 모든 동영상상을 볼 수 있는 일일 정액 과금 방식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SBS는 유료전환을 시점으로 동영상 화질과 속도를 300K이상으로 개선하고 현재 24시간 내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VOD를 방송 직후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서비스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이용방법 문의 등에 대비해 고객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SBSi는 유료전환 이후 NG 장면을 포함한 다양한 버전의 TV 동영상상과 스타 동영상상도 함께 제공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최대 500K의 고화질과 다운로드 방식 등 동영상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의 선호도와 편의에 따라 볼 수 있는 종영 프로그램 전회보기, 유사 프로그램 묶어보기 등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SBSi의 이번 유료전환의 배경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영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료라는 한계로 인한 서비스의 환경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산업 전반적인 구조 문제에서 기인된다. SBSi의 경우 동영상(Video On Demand) 이용자수가 올해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화질 및 속도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SBS는 상반기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용도 조사와 '고객 만족 실천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자체 개선 노력을 하였으나 무료라는 사용자의 인식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SBS는 이들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동영상 서비스의 유료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유료전환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동영상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SBS는 "www.sbs.co.kr의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개선의 길을 마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SBS美 창사 1주년 맞아

뷰티 포털 에이전시 (주)SBS美(www.sbsme.com, 대표 박광호)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주)SBS美는 지난 2000년 9월 'Beauty thru Digital'이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된 SBSi의 뷰티 전문 자회사로, 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한국 패션계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온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와 패션의 대중화, 국제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SIFAC(서울 국제 패션 컬렉션)' 등 한국의 대표적인 2대 패션 행사를 토대로 패션 산업을 전개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년 동안 '패션 모델의 밤', '뷰티 페어



2001', '간강 다이어트 캠프'와 '한복대전' 등 양질의 패션 행사를 기획,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11월에는 '2001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와 'SIFAC 2001'과 함께 국내 최초의 랜제리, 스웬웨어 토털 박람회인 '서울 인티마페'를 개최, 한국 패션 산업의 리더

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명동에 오픈한 '한국 슈퍼모델 뷰티 센터'는 스킨 케어와 헤어 케어, 네일 케어 등 바디 케어를 책임지는 토탈 뷰티 센터로서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로 회원들에게 찬사를 받았으며, (주)SBS美는 이를 발전시켜 2003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에 '한국 슈퍼모델 뷰티 센터'와 '한국 슈퍼모델 클리닉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001년 9월 29일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주)SBS美는 신개념의 뷰티 솔루션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패션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한국 패션, 뷰티 산업계의 호평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독자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한국 패션 산업의 리더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다.

SBS골프닷컴

美 PGA 제이슨 강 초청 골드회원 무료 원포인트 레슨



골프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SBS골프닷컴(www.sbsgolf.com, 대표 김영기)은 지난 9월 8일 청담 스포피아 골프 연습장(강남구 청담동 소재)에서 미국 PGA 정회원 제이슨 강(35세, 제이슨골프아카데미 원장)을 초청해 골드 회원 36명을 대상으로 무료 원 포인트 레슨 행사를 실시했다. 약 4시간 동안 골프 연습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시간 대별로 12명의 회원이 각 타석에서 연습을 하면서 제이슨 강으로부터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았다. 행사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미국 정통 골프의 참맛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했으며 제이슨 강이 비디오 카메라로 자신들의 스윙을 찍어가며 취약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PGA 프로 12년 차인 제이슨 강은 현재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제이슨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SBS골프닷컴에서 인터넷 전용 레슨 프로그램인 PGA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번째로 이 행사를 주관한 SBS골프닷컴은 회원들의 골프 실력 향상과 프로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채널 오픈

SBS는 9월 17일 금융 포털 사이트(www.fn.sbs.co.kr)를 오픈하고 금융 관련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TV, 라디오, 교육,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쇼핑, 라이프, 문화 코너에 더해 보다 유익한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금융 채널을 전체 서비스에 편성함으로써 서비스의 영역을 한층 더 넓히게 되었다.



SBSi 금융 채널은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재테크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유수의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통해 재테크 상품을 매월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보험정보, 보험상식, 보험뉴스, 보험 테마 분석 등의 풍부한 전문 정보뿐 아니라 매월 SBS가 추천하는 보험상품은 고객분석을 바탕으로 신뢰를 인정받은 테마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금융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에게 디지털 카메라와 SBS 머니 등을 추첨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buy6.com, 「수호천사」 PPL 쇼핑몰 오픈

SBS의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buy6.com에서는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스페셜 「수호천사」의 PPL 쇼핑몰을 오픈했다. 「수호천사」 PPL 쇼핑몰에서는 송해교가 선보였던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송해교 6종 세트'를 2만 5천원에, 그리고 김민의 14K 목걸이 귀걸이 세트를 1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김민종의 목걸이 팔찌 세트가 2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모든 상품 구매시 LG나 삼성 카드 소지자는 최고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BS의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buy6.com은 앞으로도 TV 드라마와 연계한 다양한 테마 쇼핑몰을 선보일 계획이며, 네티즌들이 원하는 스타 소장품들을 마련해 소비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SBS**

TELEVISION

CHANNEL 6

SBS

2001년 10월 8일 현재

MON

월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외출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TV 특강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탐블레이드
 6:15 드래곤 볼
 6:40 @골뱅이
 7:10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대하사극 여인천하
 10:55 오픈 드라마 남과 여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골프



여인천하

TUE

화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외출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제작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탐블레이드
 6:15 드래곤 볼
 6:40 @골뱅이
 7:10 휴먼TV 아름다운 세상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대하사극 여인천하
 10:55 두 남자 쇼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화요 야구



탐블레이드

WED

수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외출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제작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방가방가 햄토리
 6:15 포켓 몬스터
 6:40 @골뱅이
 7:10 별난 행운 인생 대역전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드라마스페셜 신화
 10:55 시트콤 허니! 허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수요 축구



신화

THU

목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외출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실속 TV! 시선 집중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룡이
 4:15 마법의 섬 띠도 띠도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방가방가 햄토리
 6:15 몬스터 팜
 6:40 @골뱅이
 7:10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드라마스페셜 신화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외화시리즈 프로파일러



외출

FRI

금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외출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금요 컬처클럽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룡이
 4:15 마법의 섬 띠도 띠도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45 물은 생명이다
 6:15 유니 미니 펫
 6:40 @골뱅이
 7:10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이 부부가 사는 법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기분 좋은 밤
 10:55 뉴스추적
 11:35 SBS토론 공방

AM

00:45 SBS 나이트라인
 00:50 스포츠 와이드
 00:55 시네클럽



이 부부가 사는 법

SAT

토

AM

5:55 토요일 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외출
 9:00 토요일 스타클럽
 10:20 이창섭 이미영의 행복찾기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50 SBS 뉴스
 5:00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스페셜
 6:00 토요일은 즐거워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50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
 9:50 장미의 이름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터닝포인트 사랑과 이별

AM

00:50 SBS 나이트라인
 1:00 게임 쇼! 즐거운 세상



아버지와 아들

SUN

일

AM

5:55 일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00 월드컵 파노라마
 8:50 도전! 1000곡
 9:50 TV 동물농장
 10:50 좋은 친구들

PM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 월드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3:50 SBS 뉴스
 4:00 생방송 SBS 인기가요
 5:00 호기심 천국
 6:00 초특급! 일요일 만세!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50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
 9:50 일요시트콤 여고시절
 10:50 영화 특급

AM

00:30 메모리스
 01:20 SBS 나이트라인
 01:30 SBS 스포츠 빅이벤트



여고시절

주간 기본 편성표 (2001년 10월 1일 현재)

LOVE FM

월

MON-SAT

토

AM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SBS 전망대
7:00 아침 종합뉴스
7:10 SBS 전망대
8:00 SBS뉴스 레이다
8:30 클릭! 경제사이트
8:45 명의에게 듣는다
9:05 손숙, 배기완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책하고 놀자

PM

12:00 낮 종합 뉴스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2:00 SBS 뉴스라인
2:20 송영길, 김민희의 한판 승부
4:05 문인숙의 노래세상
5:05 홍서범, 방은희의 흥방불패
7:00 저녁 종합 뉴스
7:15 최동철의 스포츠 닷 컴
8:05 안연홍의 나는 1035다
10:05 이지훈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00:00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
1:00 오종철의 라디넷 세상
2:00 Music Topia
4:00 쿵쾅! 노래는 트로트

SUN

일

AM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7:00 아침 종합뉴스
7:10 이도학의 역사 기행
8:05 조경철의 자동차 24시
9:05 손숙, 배기완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책하고 놀자

PM

12:00 낮 종합 뉴스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2:00 SBS 뉴스라인
2:20 송영길, 김민희의 한판 승부
4: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5:05 홍서범, 방은희의 흥방불패
7:00 저녁 종합 뉴스
7:15 최동철의 스포츠 닷 컴
8:05 안연홍의 나는 1035다
10:05 이지훈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00:00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
1:00 오종철의 라디넷 세상
2:00 Music Topia
4:00 쿵쾅! 노래는 트로트

POWER FM

월

MON-SUN

일

AM

5:00 김정일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박영일의 팝스천국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유정현의 2시 탈출
4:00 김형준의 팝스클럽 1077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8:00 채리나의 영스트리트
10:00 김동완의 텐! 텐! 클럽

AM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2:00 신혜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3:00 사운드 오브 뮤직

월~토요일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FM 103.5MHz, AM 792KHz

FM 107.7MHz

SBS미디어넷은 SBS스포츠채널(<http://sportalsbs.co.kr>), SBS골프채널(www.sbsgolf.com), SBS축구채널(<http://sportalsbs.co.kr>)의 통합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사이트인 <http://sbspr.sb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SBS 골프채널

케이블 TV ch44, <http://www.sbsgolf.com>

경 기	시 간	내 용
US LPGA, 2001 삼성 월드 챔피언십 위성 생중계	10월 5일~8일 새벽 5시~7시	삼성그룹이 주최하는 US LPGA 챔피언십을 전 경기 위성 생중계한다. 미국 하든브로크 GC에서 펼쳐지는 이 대회는 총상금 75만 달러, 우승 상금 15만 4천 달러로 지난해 챔피언 줄리 잉스터와 박세리 등의 최고 스타들이 열띤 타이틀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KPGA-KLPGA Tour, SBS 프로 골프 최강전 생중계	10월 11일~14일 낮 2시	국내 남녀 프로 골프계의 최강자를 가리는 SBS 프로골프 최강전 모든 경기를 생중계 방송한다. 태영CC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이 대회는 최고의 대회에 걸맞게 우승상금 또한 남녀 각각 1억5천 만원씩 총상금 3억 원으로 최고를 자랑한다.
KPGA Tour, 슈페리어 오픈 생중계	10월 27일, 28일 낮 2시	총상금 2억 원의 슈페리어 오픈은 미국PGA에서 활약하는 최경주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SBS골프채널은 3라운드와 최종일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빠제로배 도전7기 대회	매주 목·금요일 밤11시~12시	최초로 골프를 다양한 장르로 나누어 최고의 흥미를 유발해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빠제로배 도전7기」는 목·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골프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 갈수록 인기를 끄는 이 프로그램에는 장타, 트러블 샷, 벅커 샷, 니어핀 등 모두 일급계 장르의 도전이 생생하게 담긴다.

SBS 스포츠채널

케이블 TV ch30, <http://sportalsbs.co.kr>

경 기	시 간	내 용
WWF "Raw is War"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9시 20분	프로레슬링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WWF의 인기 프로그램 「Raw is War」. 이 프로그램은 레슬링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어 느새 SBS스포츠채널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프로레슬링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에 사로잡을 폭발하는 열기 속에 리얼한 표정과 날렵한 레슬러의 기술이 난무하는 WWF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생방송 스포츠뉴스	매주 화요일~토요일 밤 9시 50분~10시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더욱 피 말리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2001 프로야구. 그 경기 진행 상황을 가장 빠르고 가깝게 전달하는 「스포츠뉴스」가 프로야구 생중계가 끝난 직후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스포츠 전문 앵커 한정미 아나운서가, 그리고 주말에는 장희영 아나운서가 경기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제46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생중계	10월 9일, 11일 낮 1시 30분	박진감 넘치는 남성들의 파워 플레이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종목은 단연 아이스하키이다. 목동 아이스 링크에서 펼쳐지는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풀 리그를 생중계 방송한다. 생생한 아이스하키 열전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대통령배 실업야구 추계리그 생중계	10월 22일, 23일 낮 1시	아기자기한 재미와 의외의 결과가 속출하는 아마추어 야구가 가을을 맞아 펼쳐진다. 오랜 야구 마니아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프로 야구에 익숙한 신세대 마니아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가져다줄 이번 대통령배 실업야구 추계리그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낮 1시부터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SBS 축구채널

<http://sportalsbs.co.kr>

경 기	시 간	내 용
2001 POCO K-리그 하반기 리그 생중계 일정	수·토·일요일 오후 6시 50분~밤 9시 (변경 가능)	10월 시즌 종료를 앞두고 순위 확보의 열기가 뜨거워 K-리그를 생중계한다. • 10월 13일 오후 2시 50분(성남:수원) • 10월 14일 오후 2시 50분(안양:포항) • 10월 17일 오후 6시 50분(포항:부산) • 10월 20일 오후 2시 50분(울산:부산) • 10월 21일 오후 2시 50분(대전:수원) • 10월 24일 오후 6시 50분(안양:대전) • 10월 28일 오후 2시 50분(전남:부산)
2002 월드컵 남미 예선 '브라질:칠레' 위성 생중계	10월 6일 밤 12시(변경 가능)	월드컵 본선 티켓을 두고 사실상 승부전이 될 브라질과 칠레의 예선전을 위성 생중계 방송한다. 9월 초 현재까지 우루과이와 함께 24점으로 동률을 이루며 공동 4위에 있는 브라질로서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팀 명예가 걸린 브라질이 이번 경기를 통해 과거의 화려한 아트 시커를 다시 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2 월드컵 유럽 예선 '크로아티아:벨기에' 위성 생중계	10월 7일 밤 12시 50분(변경 가능)	힘이 넘치는 축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월드컵 유럽 예선전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6조 1, 2위인 벨기에와 크로아티아의 일전을 위성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각조 1위가 본선 티켓을 확보하는 유럽 예선전은 치열하게 막바지로 치달고 있다.
Lucky & Choice	화요일 밤 9시~9시 30분	축구복합의 승률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축구 마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리그와 J리그의 한 주 동안의 경기를 미리 예상해 보는 기회를 통해 축구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키울 수도 있는 이 프로그램은 VJ 유진희가 진행한다.



앱솔루트 파워
(Absolute Power)

감독/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클린트 이스트우드, 진 해크만
방송/10월 7일, 담당PD/배숙현

루터 휘트니(클린트 이스트우드 분)는 완벽한 직업 도둑으로, 늘 혼자 일하고 속임수와 변장에 능하다. 하지만 이제 고령이 된 그는 마지막 한탕을 준비, 워싱턴 DC의 거부이자 정계 막후 실력자인 월터 설리번의 집을 털 계획을 세운다. 그의 집에 침입한 루터는 침실 벽의 비밀 유리문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밖에서 보다 더 많은 보석과 현찰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루터가 이것저것 쓸어 담고 있는 사이, 밤새 텅 비어있어야 할 그 집에 누군가 들어오고 있음을 느낀다. 서둘러 유리문을 안에서 닫는 루터는 그때부터 차마 못 볼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



리셀 웨폰 3
(Lethal Weapon 3)

감독/리처드 도너
주연/멜 깁슨, 대니 글로버
방송/10월 14일, 담당PD/배숙현

오랜 세월을 LA 경찰서에서 착실하게 근무해 온 머터프(대니 글로버 분)는 이제 일주일 뒤로 다가온 정년 퇴직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LA의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그는 애써 이런 범죄에 무관심한 척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에서 압수해 보관중인 불법 무기가 사라지고, 나이 어린 갱들이 그 무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설치자 어쩔 수 없이 사고뭉치 형사 닉스(멜 깁슨 분)와 그 배후를 뒤쫓다가, 용의자가 전직 경관 잭 트래비스(스튜어트 윌슨 분)임을 알게 된다. 한편 이들은 내사반의 여형사 로나 콜(르네 루소 분) 역시 잭 트래비스를 뒤쫓고 있음을 알고...

이달의 SBS 영화 특급 일요일 밤 10시 50분 방송



첩혈속집
(The Killer2 : Hard Boiled)

감독/오우삼
주연/주윤발, 양조위
방송/10월 21일 담당PD/김박

경찰관 데킬라(주윤발 분)는 불법 무기 거래 현장을 목격하고 싸우다 친구 아룡을 잃는다. 이때 그는 암흑가 무기 밀매 조직의 일원이 암살당한 사건을 맡게 되는데, 조직의 대부 호이의 명령에 의해 아랑(양조위 분)이 그를 살해했음을 안다. 한편, 호이의 라이벌 조직인 자니왕은 아랑을 불러 호이와 데킬라의 암살을 제의한다. 호이는 결국 아랑의 총에 죽고, 아랑은 궁지에 몰린 데킬라를 구해주고 떠난다. 데킬라와 아랑은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고, 자니의 무기 창고가 병원 시체실 밑에 있음을 알아내는데...



포스 오브 네이처
(Force of Nature)

감독/브론웬 휴즈
주연/산드라 블록, 벤 애플렉
방송/10월 28일, 담당PD/김하정

결혼을 이틀 앞둔 예비신랑 벤(벤 애플렉 분)은 신부 브리짓에게 가기 위해 사바나행 비행기에 오르고 묘한 매력을 지닌 사라(산드라 블록 분)가 그 옆에 앉게 된다. 비행기는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곤두박질치고 두 남녀는 할 수 없이 사바나까지 육로 여행을 하게 된다. 미약을 소지한 중년 남자의 차를 얻어 탔다가 경찰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버스를 기다리다 폭우를 만나 허둥대기도 하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독한 자연의 변덕 앞에 벤과 사라의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환한 웃음이 되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일러스트 · 이은영

올 해 15살 난 유수의 머리는 또 '빹빹이'가 됐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해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갑자기 허벅지가 아팠을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든 투병을 해야 할 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몸살이겠거니 할 정도로 건강했던 유수가 처음 쓰러진 건 지난 해 9월, 두 번씩이나 찾아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유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IMF 한파로 페인트공인 아빠의 벌이조차 끊어진 상황에서 유수의 백혈병은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지하 셋방이지만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다섯 식구들은 유수의 발병 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아홉 살 짜리 동생, 먼 친척집에 맡겨진 세 살 짜리 막내,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나선 아빠, 유수의 병수발에 부쩍 늘어버리신 엄마...

하지만 뽀뽀이 흠어진 가족들을 보면서 정작 유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혹하리만큼 힘든 항암 치료, 40도를 넘는 고열에 정신을 잃거나 합병증까지 겹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유수는 자신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있었습니다.

열 다섯이라는 나이로 감당하기 어려운 투병 생활을 견디던 유수에게 어렵사리 골수 이식 제공자를 찾았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한달 전, 하지만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면 5,000만원이 넘는 수술비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병이 재발한 지금, 기초 체력마저 떨어진 유수의 몸은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힘든 투병 끝에 10킬로그램이 빠져버린 유수의 앙상한 손을 잡아봅니다. 아직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의 유수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가닥 완치의 희망마저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유수야, 힘내라!"

하지만 온 몸을 저며오는 고통을 참는 유수의 눈망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취재 내내 마스크에 가리웠던 유수의 얼굴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 한가운데 맺혔습니다. 아마 유수가 환히 웃으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내 풀어지지 않을 응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SBS**

글 | 한수진 'SBS 8 뉴스' 앵커